

2장 Quentin Skinner, Rhetoric and Conceptual Change¹⁾

- 스키너와 코젤렉의 관점을 비교, 비판한 팔로넨의 논의²⁾에 대한 대답과 코젤렉과 자신의 입장 차이에 대한 설명
- 스키너는 사상사, 관념사 연구에 있어서 정치 및 도덕세계를 기술하고 평가하는 데 채택되는 개념들과 그 개념들을 관습적으로 표현하는 다양한 용어들, 즉 전체 '규범적 어휘' normative vocabulary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고 봄. 이는 기술적 descriptive 기능과 함께 평가적 evaluative 기능을 수행.
- 1970년대 초, 자신의 개념변화에 대한 연구는 'The' 정치언어와 규범언어에 대한 논의가 불가하고, 사회와 역사에 따라 다른 맥락을 고려해야 한다는 반론에서 출발. 또한 영구적인, 불변의 단위 관념 unit ideas 그 자체의 역사는 있을 수 없고, 오직 다른 시대에 다른 행위자들이 그것을 사용한 다양한 용법의 역사만이 있을 수 있다고 봄. 관념사는 용법사의 역사다.

○ 코젤렉의 개념사와 스키너의 연구

- 모든 규범적 개념들을 세계에 대한 진술로 보기보다 이데올로기 논쟁의 도구, 무기로 취급할 필요가 있음.
- 1960-70년대 코젤렉의 연구에 대해선 잘 알지 못했고, 1995년 이후에 그의 연구 성과를 알게 되었음. 자신도 개념변화에 대한 역사를 다루려는 시도를 했었다고 함.³⁾
- 팔로넨의 지적대로, 개념변화를 연구중심으로 두는 데에 동의. 저자의 주장은 도덕적, 사회적 세계가 우리가 물려받은 규범적 어휘들을 적용하는 방식에 의해 지탱되고, 우리가 세계를 재평가, 변화시키는 방법은 이 어휘들이 적용되는 방식을 바꾼다는 것임. 따라서 평가적 개념들의 변화하는 용법들을 추적함으로써 사회적 변화와 그 동력을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초점은 개념상의 변화가 아니라, 개념들이 표현되는 용어들의 용도 변화임을 강조.

○ 개념 변화를 역사적으로 탐구하는 두 방향

- 1) 특정 규범적 어휘가 시간이 지나면서 채택되는 범위, 정도의 변화를 추적
새로운 형태의 사회적 행동의 등장 → 새로운 가치를 중심으로 한 평가적 어휘들 등장
사회가 특정 행동양식, 가치 부여를 줄임 → 규범적 어휘의 위축
- 자신의 입장이 개념의 장기적 변동(또는 장기지속)이 주요 관심사가 아니었고, 이점에서 코젤렉류의 개념사와 다르다. 급격한 개념변동에 대한 세밀한 연구가 중심. 또한 변동어휘들은 사회적 삶의 더 깊은 변모의 지표, 반영에 불과하기 때문에 개념사가 설명적 가치를 지니기 위해선 사회적 삶 자체의 수준에서 설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함. 하지만 저자는 사회

1) 출처: Skinner, Quentin. "Rhetoric and conceptual change." *Finnish Yearbook of Political Thought* 3 (1999): 60-73.

2) Palonen, Kari. "Rhetorical and temporal perspectives on conceptual change." *Finnish Yearbook of Political Thought* 3 (1999): 41-59. 팔로넨은 개념변화의 연구에서 스키너는 더 언어적, 수사적인 관점을 취하고, 코젤렉은 역사적 시간이론의 관점을 취한다고 구분. 스키너에게 시간은 단순히 개념변화에서 나오는 수사의 배경인데, 코젤렉에게 수사는 개념의 시간적 변화를 표현하는 수단일 뿐이라고 봄.

3) Liberty before liberalism(1998) 외.

변환의 기제에 관한 일반 이론이 없고, 있을 수 있다는 데 회의적임.

- 2) 사회세계를 기술, 평가하는데 사용되는 어휘들이 지속적으로 구겨지고, 미끄러지는 경우
- 특정한 평가행위를 수행, 장려하는 규범적 어휘의 능력이 방향, 강도에 있어서 변화. 기존의 사회적 인식, 믿음을 변경하려는 시도들이 있고, 이에 따라 사회적 가치들이 변화
 - ex) 관대함liberality, 르네상스 궁정에서의 미덕을 마키아벨리는 악덕으로 평가
 - 사회의 근본가치/실천의 태도가 변경 → 규범적 어휘도 변경.
 - 하지만 자신은 평가적 용어들이 평가적 효력을 상실하거나, 방향성을 변경할 때 이를 이끄는 장기적 사회변모에는 초점을 두지 않았다고 함. 또 다른 코젤렉과의 차이로서 사회사를 쓰지 않음. 팔로넨의 비판대로 자신이 일정개념들의 의미에 시간 자체가 포함될 가능성을 탐구하려 시도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

○ 팔로넨이 자신을 수사적 관점'이라고 평가한 것에 대한 설명

- 수사적 재기술(Rhetorical redescription): 어떤 행동, 사태가 평가적인 언어에 의해 기술될 때 변화가 시작됨. 수사적 재기술의 목적은 용어가 겉보기와 달리 현재의 사례에 정당하게 적용될 수 있음을 청중에게 설득하는 것임. 이를 통해 문제의 행동을 새로운 도덕적 관점에서 볼 수 있게 하는 것.
- 1970년대 초, 모든 평가적 용어에는 한 시기에 용인된 표준적 의미와 용법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함. 규범적인 어휘를 조작하는 'innovative ideologists'가 있고, 수사적 재기술의 기법들에 대해 쓴 고대이론가들의 저술들에 주목. 겉보기에 상충하는 평가적 용어들 사이에는 어느 정도 'neighborliness'가 있다. 규범적 용어의 올바른 용법을 정하려는 시도들은 이데올로기적이고, 용어 채택은 특정 도덕적 관점을 사회세계의 작동에 부과하려는 것을 반영
- Quintilian, *paradiastole*: 주어진 평가적 기술을 경쟁용어로 대체하고, 같은 행동을 대조적인 도덕적 관점아래 두는 것. 청중에게 관련 행동에 대해 새로운 태도를 취하게 하는 것.
- 예) 마키아벨리, 관용의 '군주적' 미덕은 실제 악덕이다.

○ 팔로넨이 스키너의 연구프로그램이 코젤렉류의 개념사에 기여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평가에 대해, “코젤렉은 개념변화의 전체 과정에 관심이 있고, 나는 그것이 발생하는 기법 중 하나에 주로 관심이 있다”고 하면서, 두 입장이 서로 양립가능하며 발전할 것이라고 봄.